

사설

국도 7호선 간성~현내 4차선 확포장 사업 가운데 송죽~반암 구간 900m가 기존 도로를 살리지 않고 4차선과 합쳐지는 것으로 진행돼 준공 후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런 지적은 사실 지난 6월께 도로 윤곽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주민들은 간성~거진 구간의 모든 공사가 기존도로를 살리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왜 하필 이 구간만은 기존도로가 사라지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농기계 운행 불편과 시내버스 진입 문제 등을 놓고 감리단과 주민대표들이 뒤늦게 만나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취재결과 주민들이

믿고 있는 합의내용과 감리단이 생각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향후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처에서는 올해말까지 간성~거진 구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자칫

국도7호선 확포장 민원처리 확실해야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탓 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암리 주민들의 농사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안초소의 비좁은 통로박스를 확장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주민들은 내년 봄까지는 될 것으로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군부대 협의과정이 지연되면 언제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반암에서 송죽리로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현재의 송죽리 마을 승강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 경우, 감리단이 설계변경을 신청했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쉽게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민원이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어서, 성사가 늦어지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고성군을 비롯해 동해안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돌아해보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준공 후에 한참이 지나서 육교를 철거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

특히 지금 확포장되고 있는 국도7호선은 고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고성군도 지역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시행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야 한다. 사업 주체가 아니라고 수수방관만 한다면 두고두고 원성을 살 수 있다.

내가 서있는 이 땅이 죽어간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쥐도 새도 모른다 하더니 이 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날 지구 곳곳에는 물난리와 폭풍우 토네이도(tornado) 태풍 등이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기타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가릴 것 없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UN C 11E)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이 인류의 대업을 위하여 유엔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40년이 다가온 오늘에 제자리 걸음 오히려 오염으로 인하여 오존층은 넓게 공황이 생겨서 식물에 영향을 미쳐 말라죽는 현실, 탄산가스배출로 해변에 접한 나라에도 위험수위의 신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뿐 아니라 육지의 쓰레기가 남태평양에 스트로폴 등 각종 쓰레기로 섬을 약 66만km² 이루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동시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압박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제 365일 불침번은 물론 중요하다. 나 자신 국민 개개인은 녹색성장 혁신을 이해하고 나로부터 우리에게로 모두가 그린성장혁신에 참여하여 몸소 실행하여야 하겠다는 것.

내가 사는 길이 인류가 생존하는 길이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지혜 모으자

다. 곧 인류의 생존은 우리가 사는 길이다. 공기오염원 토양의 오염원 수질오염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길 뿐이다. 내가 무심히 버린 물질들이 우리에게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법령을 1978년 7월1일 시행한 이래 수질 대기 토양 독극물 해양 소음진동 특정유해물 합성화학 배출 및 그 환경영역을 산업 건설 농수산 중소상공 환경 등 환경의식 고조되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준용하천은 몇 급수일까? 토양오염은 광산과 공장에서 배출되어 중금속에 의하여 농용지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인데 유해한 물질은 카드뮴 동 아연 수은이다. 뿐만 아니라 토양잔류성 농약 토양 중에 중금속량이 있다는 것. 그밖에 산성비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보면 “R. Engels & Smith 박사는 1852년에 자기 집에 내린 비가 산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유럽전역을 20년 동안 조사연구결과 산과 비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산성비는 석탄이 타면 물과 이산화황은 산소와 결합하여 기체가 된다는 것. 이 기체가 땅에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땅에는 탄화칼슘이 기체를 중화시키지 못하여 물은 산성화되고 물고기는 그와 같은 물에서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토양 작물 동식물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물론 지구의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 한편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이 잡은 곰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된 곳까지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간다. 나 우리의 오염행위로 말미암아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운명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친환경적 에너지로 대체하는 시급할뿐더러 오염원 화학물질의 사용을 극소화 하여야한다는 것은 살아남는 교훈을 주었다.

한편 지구환경보호연구소 보고에 의하

면 지구의 수명은 이대로 간다면 2050년 거의 기능이 상실한다는 발표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꼬집어 내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의 대체,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돌출구의 지혜를 모아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안일한 불침번은 죽음이 기다릴 뿐이요 변신한 초병은 생명을 부지할 것이다. 즉 환경 365일 불침번 되어 인류의 운명을 구제한다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예는 2차 대전 중에 DDT를 사용하여 병충해나 말라리아는 감소되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용된 DDT가 분해되지 않아 장기간 자연에 잔류하고 있던 것을 물고기가 그걸 먹고 다시 그 물고기를 먹는 먹이사슬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이후 우리는 DDT를 사용하였다. 즉 유독성을 몰랐거나 2차 대전경험을 못했기에 사용했던 좋은 사례이었다. 절절절수는 녹색성장혁신의 첨병이란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땅과 물의 오염문제는 결코 수수방관하거나 우리가 서로회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활을 파괴하는 적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365일 환경보전의 불침번이 되고, 첨병이 되는 것만이 오염과제의 해법이다.

사람이 만든 이 재앙은 사람이 거두어야 한다. 우리 마을 내 고장 우리나라의 녹색혁신성장운동에 앞장서서 인류생명을 구제하는 실천정신을 이취 성취하는 일 뿐이다.

◇편집국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오는 21일 강원도 DMZ박물관에서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날 공연에는 40인조 팝스오케스트라와 팝페라 가수 이시벨, 바리톤 정경, 소프라노 이종미, 대금 남기철 등이 출연해 가을의 추억을 선사한다.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이처럼 품격있는 음악회가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주민 대부분이 생계로 바쁘겠지만, 모처럼 마련되는 음악회를 찾아 선율을 느끼며 잠시 삶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